

대학생 대상 임신출산, 모유수유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분석을 통한 예비부모 맞춤형교육시스템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pregnancy, childbirth, breast-feeding UCC and web_based tailored
pre-parental educational system among University Students

주저자 : 정혜경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Chung hae-kyung

Konkuk University

공동저자 : 송승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3기 영예학생

Song seung-hyun

Kyung Hee University Pride & Honor Student

공동저자 : 강훈구

두원공과대학 경영과 교수

Kang hun-ku

Doowon Technical College

공동저자 : 이운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광고홍보학과 박사수료

Lee woon-hyung

Hongik University

공동저자: 송승호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Song seung-ho

Konkuk University

교신저자 : 강남미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간호학과 교수

Kang nam-mi

Konkuk University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1-0002402)"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기법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UCC 및 웹기반 예비부모교육자료 분석 결과

4.1.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분석

4.2. 교육자료 수상자 심층인터뷰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부 산전, 산후 교육 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훈련체험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행복한 가정꾸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정하고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안내와 조기 중재에 대한 예비부모건강교육 및 맞춤훈련의 이론적 기틀을 구축하여 중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맞춤형 예비부모 모유수유 교육정보의 이론적 모델과 기틀은 Keller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위한 ARCS모델의 동기전략, B&L(몸과삶) FUN 부모 역할모델, 부모스트레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행복한 다자녀가정꾸미기 대학문화 캠페인-예비 엄마 아빠 B&L(몸과삶) FUN 신건강 프로젝트- 사업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여 웹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임신출산 및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맞춤교육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아기돌보기, 모유수유 등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한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공모전을 2010년 9월부터 12월에 실시하였고 일반 대학생과 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제작과정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제작과정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사운드 그리고 동영상의 활용 등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웹기반 예비부모맞춤교육자료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출산, 모유수유, UCC, 웹, 맞춤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hange of attitudes toward marriage, childbirth and breast-feeding by the UCC contest conducted during the UCC workshop held in September-December, 2010, which was devised to encourage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and breastfeeding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study assumed that because the UCC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dividual's perinatal attitude, the determinant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planning on breastfeeding at each individual student might change with UCC campaign. After the UCC campaign, th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low fertility had changed. These findings pointed out that by making funny tailored pre-parental UCC which gives educational information for family having children it was possible to raise the fertility rate and make planning on Childbirth without the anxiety of pregnancy and child care. These results supported that the tailored supportive education and web-based information for pre-parental couples was able to induce changes in marriage and birth-related attitudes to overcome the low birthrate of Korea.

Keyword

Childbirth, UCC, Web, Tailored educ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0002402)"

1. 서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맞춤형교육정보의 기본틀 개발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신, 출산 및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한 실제 모유수유 교육시 필요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신, 출산 및 모유수유 교육시 효과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웹 기반한 교육정보의 구축과 적용을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비부모 건강교육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출산과 양육 관련 체험을 공유하여 교내외에 긍정적인 결혼과 임신, 출산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한 다자녀 꾸미기 대학 문화 캠페인을 맞춤형교육시스템으로 실시하였다.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 맞춤형교육시스템은축제, 세미나, 워크숍 등 대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지향적인 내용으로 대학생들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과 예비부모 문제를 극복하고 모유수유를 증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맞춤예비부모교육시스템	1. 예비 부모 전략 토론회 및 임신체험
	2. 다자녀가 행복이다 출산장려마당극
	3. 행복한 다자녀가정 꾸미기 대학문화 캠페인
	4. 저출산 극복 상황극
	5. 행복한 가정 꾸미기 골든벨
	6. 모유수유 양육체험토론회 UCC 공모전
	7.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 워크숍

[표 1] 맞춤형 예비부모교육시스템 내용

위의 [표 1]은 맞춤형 예비부모교육시스템 내용이다.

미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예비부모와 현재 가정을 이룬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등의 심리적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인식을 변화시켜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발성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실용적일 것이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부모교육자, 보건의료인들 지도하에 대학생들 스스로 계획한 맞춤형 예비부모 교수학습시스템을 통해 대학생들이 맞춤형교수-학습체험을 통하여 예비부모로서 임신출산 문제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미래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장 기피하는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문화 캠페인을 K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할극과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는 저출산 모의재판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만 아이는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덩크족이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의식에 대해 모의 재판 형식의 연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기획과 연출, 극본을 맡고 직접 출연하였다. 이 때, 이 상황을 관찰한 일반 대학생들의 결혼 및 부모역할 인식도, 저출산 문제와 모유수유에 대한 성향 및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항을 만들어 2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145명이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122명의 자료가 변수에 따라 수집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포맷으로 코딩하였으며, 코딩된 자료는 SAS version 9.1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UCC 및 웹기반 예비부모 교육자료 공모전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직접 저출산, 모유수유, 아기 돌보기, 건강행위를 소재로 한 UCC 및 웹기반 대학생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도록 하고 스스로 관련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동영상이나 웹기반 자료로 표현해 보도록 중재하였다. 후에 UCC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기법

본 사업에 적용한 맞춤형 가상교육 콘텐츠 제공기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성향과 수준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수-학습 환경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강남미, 송용, 이운형, 정혜경, 2011; 이자희, 2005). 웹기반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협동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업도구로서 기존의 획일화된 교수-학습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수모형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김민성; 박성훈, 2010). 특히 아기와의 놀이, 결속애착, 모유수유 등 부모-아기상호작용 증진방법 정보를 웹기반 맞춤형건강정보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letcher, Vimpani, Russell & Keatinge, .2008)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

하고, 참여와 개방, 공유로 대표되는 Web 2.0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UCC(User Created Cont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철호, 정덕화, 2009).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UCC는 수많은 잠재력과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하나이다. 세계적인 미디어 조사기관인 닐슨(Nielsen)은 지난 2006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브랜드 Top 10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중 5개가 UCC관련 인터넷 사이트였다(Nielsen NetRatings,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결혼에 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UCC공모전을 통해 동영상 제작해 봄으로써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UCC 하면 쉽게 동영상을 떠오르기 쉽지만,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포함된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물들은 모두 UCC 동영상물들이다. 사실 동영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PR콘텐츠였으나, 브로드밴드 기술의 확산이 이를 보다 더 유용한 도구로 부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이유나외, 2011). 또한 UCC 동영상은 기존의 전통방식 콘텐츠에 비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장애가 낮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PR 효과를 창출하며(김찬석, 2009), 메시지 창출 및 확산에 적합하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김찬석, 2007). 특히, UCC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기능을 하여, 공중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유나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 및 웹기반 예비부모 교육자료 공모전이라는 맞춤형교육시스템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고 건강한 다자녀 가정을 꾸미기 위한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시켜 저출산 극복과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맞춤형 예비부모 및 모유수유 교육정보의 이론적 모델과 기틀은 Keller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위한 ARCS모델의 동기전략(Keller, 2000), B&L(몸과삶) FUN 부모 역할모델, 스트레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마련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학습동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동기에 따라서 학습의 성취여부는 달라지므로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에 관하여 동기가 관심이 부족할 때 학습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교수를

설계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야 한다(Keller, 1987).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임신, 출산 및 모유수유에 필요한 지식을 직접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신부 산전, 산후 교육시 대상자의 수유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임신, 출산 및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전환과 수유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범위는 결혼 및 부모역할, 저출산 및 웹기반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 등을 객관식 척도와 개방식 질문에 의해 분석평가하였고, 결혼 및 부모역할, 저출산 및 웹기반 모유수유교육 시스템의 활용 효과 및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이때 설문지는 결혼 및 부모역할, 저출산 문제와 모유수유 등에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4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토된 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임신체험, 모유수유, 양육체험토론회 및 UCC 공모전 등 개별적 맞춤 예비부모 교육시스템에 참여한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시스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혼 및 부모 역할 인식도(8문항),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성향 및 태도(16문항)에 관해 5점 척도 설문지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변인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44	45.7 %
	여자	78	54.3 %
		(총 122명)	100 %
학년	1학년	16	11.8 %
	2학년	14	13.1 %
	3학년	10	8.1 %
	4학년	82	64.0 %
		(총 122명)	100 %
출생지역	촌락(읍,면 지역)	10	8.2 %
	도시(시, 광역시, 특별시)	112	91.8 %
		(총 122명)	100 %

[표 2] 맞춤형교육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는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성별은 총 122명의 응답자 중 남자 대학생의 참여 비율은 44명 참여하였고, 여자 대학생이 78명 참여하였는데,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의 관심이 더 높았다. 학년은 4학년이 82명의

참여로 로, 다른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합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이 64.0%로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결혼 적령기에 근접해 있어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고 관심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출생지역은 도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112명 참여로 월등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예비부모역할 인식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	평균
1. 결혼은 성스럽고 축복받은 것이다.	0	3	22	45	52	122 (100)	4.2
2.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2	1	22	48	46	119 (100)	4.13
3. 결혼한 부부들은 대부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0	13	69	27	13	122 (100)	3.33
4.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5	9	40	35	33	122 (100)	3.67
5.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0	3	30	54	35	122 (100)	3.99
6. 나는 결혼 후 내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있다.	2	19	29	40	32	122 (100)	3.66
7.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17	31	25	29	19	121 (100)	3.02
8. 나는 결혼 후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3	14	31	38	36	122 (100)	3.74

[표 3] 예비부모역할 인식도 결과

[표 3]은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및 부모 역할 인식도'로 질문에 답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외하여 문항 중에서 전체가 122명이 아닌 문항들이 있다. 1번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치인 4.20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2번 문항으로 평균치가 4.13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이 행복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직은 좋은 풍토이며, 예비부모로서 부부에 대한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6번, 7번, 8번 문항인 자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녀를 기르는데 대해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4번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치인 4.35를 차지해 대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13번 문항인 다자녀 가정을 꾸미고 모로써의 역할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6번, 7번, 8번 문항인 자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녀를 기르는데 대해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m=4.30), 8번 문항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력을 지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m=4.21). 등의 설문이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높아져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들도 고려의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밖에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는 설문을 살펴보면 16번, 14번, 2번, 11번 문항들로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은 자녀를 낳아 기를 생각이 있으며,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다자녀를 이룬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이들에게 잘 이루어진다면 다자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 성향 및 태도	전혀아니 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 다	전체%	평균
1.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21	30	28	37	122 (100)	3.57
2. 결혼 후 자녀를 낳아 기를 계획이다.	1	9	20	49	43	119 (100)	4.02
3.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다 1명의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가 경쟁 사회에서 뒤지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더 낫다	10	21	43	30	18	122 (100)	3.20
4.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0	0	17	45	60	122 (100)	4.35
5.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양육 및 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알고 있다.	9	51	41	15	6	122 (100)	2.66
6.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2명이상 낳아 기르겠다.	7	15	29	33	38	122 (100)	3.66
7.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2명이상 낳아 기르겠다.	6	7	32	40	37	122 (100)	3.78
8.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력을 지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0	3	13	61	45	122 (100)	4.21
9. 경제력이 된다면,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8	11	36	29	38	122 (100)	3.64
10.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꾸미기 캠페인은 필요하다.	0	0	31	59	30	120 (100)	3.99
11. 내몸과 삶이 즐거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예비부부교실 수업이 필요하다.	0	7	29	54	32	122 (100)	3.91
12. 내 주위에서 다자녀 가정을 보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12	53	41	14	122 (100)	3.43
13. 다자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0	0	22	42	58	122 (100)	4.30
14.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부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3	23	40	54	122 (100)	4.16
15. 정부에서의 출산장려 지원과 독려가 충분하다면 결혼 후 자녀는 가급적 많이 출산하고 싶다.	7	5	41	36	33	122 (100)	3.68
16. 혼자 있는 아이보다 형제자매 등 2명이상 같이 있는 아이가 행복해 보인다.	0	2	20	53	47	122 (100)	4.19
합계							3.79

[표 4]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성향 및 태도 결과

4. UCC 공모전 및 웹기반 교육자료 분석 결과

4.1. UCC 및 웹기반 교육자료 분석



[그림 1] 사랑, 대상작

‘사랑’이라는 작품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본 영상작품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여러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여러 자식을 낳아 대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줌으로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행복은 배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펴낸 ‘2010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186개국 중 184위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자식이 태어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라 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유는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와 대학교생의 등록금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런 부담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문제는 초고속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유발한다. 신완섭과 신윤섭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림 2] '아이는 사랑입니다.' 금상작

'아이는 사랑입니다'라는 작품은 아이가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한두 명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작은 관심과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특히 도표를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그림 3] '내 자식.' 은상작

'내 자식'이라는 작품은 저출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해 보는 이들에게 자극을 주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했다. 검정색 배경에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사진들과 단어들을 보여줌으로써 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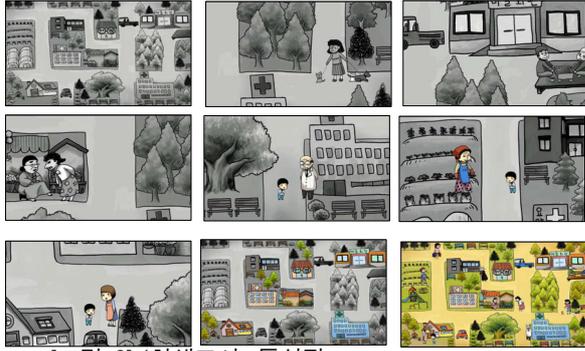
[그림 4]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 대학 캠페인' 은상작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 대학 캠페인'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실태와 이유. 그리고 현재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B(몸)&L(삶), Fun(즐거운) 대학문화캠페인의 필요성을 통한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를 위한 대학생의식전환에 그 목적을 두었다. 작품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첫 부분에서는 현재의 저출산의 실태와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키려고 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B&L 대학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얻은 자료나 인터뷰 등을 통해 문화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의 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필요성을 감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 하였다.



[그림 5] '탄생의 나무, 동상작

'탄생의 나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 국가는 마치 사막 한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무 같아서, 사막에서 나무가 살기 위해 뿌리를 깊게 그리고 많이 내리듯, 국가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사람, 즉 아이들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의 영상이다. 제작자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의 은유를 통해 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아이들은 국가의 존폐를 좌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였다.



[그림 6] '회색도시, 동상작'

'회색도시'는 저출산의 부작용이 심해져 아이가 없어진 노인만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라는 상상으로, 모노톤으로 우울한 도시를 그래픽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런 세상에서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값진지, 아이를 통해 회색빛 마을이 색상이 가득한 마을로 변해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노인만 있는 회색도시가 한 아이로 인해 점점 밝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줬다.



[그림 7]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동상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는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식의 개선을 위해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에게 행복한 출산과 양육, 나아가 가족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는 캠페인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되었다.

4.2. 교육자료 수상자 심층인터뷰 결과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저출산 고령화 관련한 UCC 동영상을 만들어보기 전과 후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사랑, 대상작 예비부모 학습자(임윤지)가 언급한 내용이다. "영상을 제작하기 전,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생각해 보니 금전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만 낳아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만만치 않다. 초, 중, 고를 거쳐 대학까지 가게 되면서 교육비도 엄청나다. 물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문제인 것 같다. 지금 시대에 살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한명만 낳아 야지라고 종종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공모전을 통해 자료 조사를 하고, 영상 제작을 하면서 서서히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그림 2] 은상 '아이는 사랑입니다' 예비부모 학습자(신원섭과 신윤섭)가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가 만든 UCC는 교내에서 진행된 행복한 다자녀가정 만들기 대학문화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CC를 만들기 전까지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캠페인에 참여하여 UCC를 만들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캠페인이 학생들의 의식을 많이 바꾸게 됐다. 작은 관심과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아이가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한두 명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행복한 다자녀가정 꾸미기 대학문화 캠페인'이 점차적으로 확대 돼서 더 많은 대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그림 3] 은상 '내 자식' 예비부모 학습자(오하진)가 언급한 내용이다. "영상을 기획하기 전 자료조사의 단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6.25 전쟁 시기의 출산율이, 전 세계 GDP상위권에 속하는 2009년의 출산율보다 무려 약 5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금의 대학생들중 어느 누가 애를 많이 낳아 대가족을 꾸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UCC제작을 계기로 많은 심각성을 알게 되고, 돈 보다 더 중요한 나의 피붙이 자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나니 제 안의 의식이 많은 변화가 생긴걸 알게 되었다."

[그림 4] '행복한 다자녀 가정 꾸미기 대학 캠페인' 은상작 학습자(송승현과 천민호)가 언급한 내용이다. "요즘 고위험 임신과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할 인간의 탄생 수가 점점줄어드는 현상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사회적 측면으로 육아부담, 탁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어려움,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지출증가와 개인적 측면으로 독신의 선호, 만혼, 출산연기,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으로 가치관 및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모유수유라는 부모역할행위가 모아애착증진을 초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건강을 이루는 초석이라는 사실을 대학생들 스스로 인지적으로는 물론 몸으로 터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더욱 요구된다.“

[그림 5] 동상 탄생의 나무 학습자(어재경과 이상호)이 언급한 내용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보다 신중히 현 시대에 고령화 사회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는 가족과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아닌 행복과 희망의 가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림 6] 동상 ‘희색도시’ 학습자(이정희)가 언급한 내용이다. “아이들을 위한 제도나 공공기관의 변화가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는 데에 부담을 줄이게 하고 또 태어난 아이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선뜻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가 만든 동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제도의 변화였다. 흑빛이었던 마을이 오색 빛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7] 동상 ‘이제는 우리차례입니다’ 학습자(정지윤과 정진선)가 언급한 내용이다. “이 동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전에 모의재판에 참여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물질, 발전, 개혁 등의 단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당장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 많은 사람들

에게 꿈이자 바람이다. 이 동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밝은 미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그런 밝은 미래는 커녕 우리나라가 소멸될 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임신, 출산 및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전환과 건강행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결정요인 및 실천방안 분석을 통하여 정보와 상담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상담프로그램의 내용설계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대학생들은 자녀를 낳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이 행복해 보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의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막연한 자신들의 생각과 주위 지인들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을 지켜보고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를 접할 기회를 많이 주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에게 정부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홍보가 단순 캠페인이 아닌 부모역할에 관한 학습자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교육시스템을 적용한 능동적인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즉,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사운드 그리고 동영상 등의 활용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웹기반 예비부모용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배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예비부모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교육시스템의 개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UCC공모전이나 다자녀 가정꾸미기, 모유수유 등 부모역할에 대한 교수-학습 맞춤형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학생 스스로 임신, 출산 및 부모역할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의 인구정책 및 예비부모교육은 성공하여 대학생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꾸미기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지속적인 효율적인 예비부모교육훈련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에게 저출산 시대의 임신전 관리와 태아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대학생과 학부모,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낙태, 모성 관련법, 출산장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7. 감사의 글

“영유아 모유수유를 위한 웹기반 보건의료용 맞춤형교육시스템 개발 및 적용(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Web-based tailored public health education system for Infant breastfeeding)”이라는 과제를 통하여 특별히 영유아 모유수유를 통한 모아 건강은 물론 가족건강증진에 필요한 웹기반 보건의료 맞춤형교육사업이라는 새로운 간호과학 기초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이 가능토록 도움과 지지를 주신 닥터U와 함께 몸맘삶훈련의 유태우원장님,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현대선 학장님, 이화여대 약대 김화정교수님,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님, 여성건강간호학회 그리고 자료수집분석 등 연구사업을 도와 주신 송 용 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 강남미, 송용, 이운형, 정혜경(2011). 보건의료용 모유수유 맞춤형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및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31: 235-244.
- 김민성, 박성훈(2010). 플래시를 이용한 웹기반 수업에 관한 고찰.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1(2), 225 - 234.
- 김찬석 (2007). PR실행에 관한 연구: 메시지, 타이밍, 공중접촉, 매체 선택 및 활용을 중심, 홍보학연구, 2007 특별호, 5~39.
- 김찬석 (2009). 동영상 UCC를 통한 PR: PR 실무자와 대학생의 인식 질적 비교, 홍보학연구, 12(1), 46~72.
- 이유나, 문빛, 박건희. (2011). 소셜미디어 PR 콘텐츠의 품질평가 동영상 및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 홍보학회. 83~115
- 이자희((2005). 가상교육에서의 맞춤 콘텐츠 제공시스템 설계 및 구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0(1), 84-95.
- 정철호, 정덕화(2009). UCC 서비스의 콘텐츠 품질이 사용자만족과 지속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94~303.
- Fletcher R, Vimpani G, Russell G, Keatinge D.(2008). The evaluation of tailored and web-based information for new fath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4(4), 439 - 446.
- Keller, J.M.(1987).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motivational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0(3), 2-10.
- Keller, J.M. (2000), How to integrate learner motivation planning into lesson planning: The ARCS model approach,
- <http://www.arcsmodel.com>